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7. Vol. 302

기획특집_민선7기 출범 2주년을 보내며, 양양군 살맛납니다

민선7기 반, 2년을 보내면서

양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수 김진하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도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관광자원, 교통인프라, 문화시설, 교육복지 확대등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대천 르네상스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낙산도립공원 폐지에 따른 군 관리계획도 정비가 완료되어 개발의 불씨가 될것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완공, 양양경찰서 신설 확정 등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육아통합지원센터도 건립중에

양양소식
Vol. 302

CONTENTS

양양소식 · 302호

| 발행일 2020년 7월 4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희망양양

04 기획특집_ 민선7기 출범 2주년을 보내며, 양양군 살맛납니다
08 ISSUE & PEOPLE_ 양양군수 김진하
10 기획특집_ 민선7기 2년 주요성과
11 발걸음 촌촌, 마을 가는길_ 손양면 가평리
14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 어부들의 고유한 탕반湯飯음식 문화

있어 보다 전문적인 육아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 만은 않았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3수 끝에 운송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 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힘을 모아 지혜롭게 극복하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는 전반기의 연속성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8월 착공하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을 축으로 종합운동장에서 7번국도를 연결하고, 남대천을 순환하는 국도4호선을 통해 도시를 확장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과감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르익은 지역 발전의 디딤돌을 바탕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전략적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양양군수 金 接 夏 드림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의기양양

16 YANGYANG NEWS
19 포토뉴스
20 의정소식_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둔전골과 진전사

열린양양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 신간
25 정보꾸러미_ 일자리 정보 / 공공기관 행정정보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민선7기 출범 2주년을 보내며, 양양군 살맛 납니다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보내며 군민들은 어떤 변화와 발전을 느끼고 있을까.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좁혀진 만큼 관광객이 늘고 서핑이라는 새로운 레포츠 문화가 인구 유입 효과를 내고 해변 문화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이 그렇듯 인구 감소로 도시가 축소되는 것에 비해 양양에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급격하고도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민선 7기 전반부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의 변화된 지역 문화를 체감하고, 앞으로 지역 내 기반 시설의 완공과 맞춤형 복지 등으로 양양군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민선 7기 2주년을 점검하고, 지역의 도시 확장과 복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추진 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완성도 있는 군정을 이끌기 위한 계획을 살펴본다.

1 도시 확장과 도시 재생으로 도심의 미관과 편리성 개선

양양군 내 도시기반 확충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다.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민원이었던 종합버스터미널 이전, 전통시장 정비와 전선 지중화 등 눈에 띄는 기반 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까닭이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양양종합버스터미널은 1978년 건립돼 협소하고 노후되어 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해 이전이 요구되어 왔다. 교통여건의 변화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에 내년 8월

준공되는 시외 · 고속버스를 통합한 종합터미널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월리 전원택지(22필지) 조성은 양양으로 귀촌 및 귀농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원택지 조성은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 인근 군유지 개발로 공공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고 공유지의 부가가치 창출 및 도시민 유입으로 인구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중광정리 전원마을(68필지)과 정암지구 전원마을(67필지) 조성 사업이 분양 공고 중이다.

도로 여건 개선으로 교통 수요에 대비한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군도 4호선 송현리~가평리 구간의 확포장 공사로 낙산오산 관광지와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선되고, 군도 5호선 동호리~여운포리 구간의 해안로 연결도로가 개선된다.

시내 중심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완료되어 시장 주변 볼거리 및 편의시설이 확충되었고, 양양교~양양도서관 구간의 전선 지중화로 도심이 단장된 데 이어 군청사거리~새한공업사 구간도 완료돼 도시경관이 정돈되었다.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고 새로운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서, 대규모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관광 개발 전략이 추진되고, 수산항을 아름다운 어항으로, 기사문항은 어촌 뉴딜300 사업 등 해안 관광자원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남대천, 르네상스를 이루다

양양군을 관통하는 남대천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 관광의 총집결체로서 가치가 높다.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과 생태관광지 조성,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3개 분야에 17개 과제가 추진돼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처리 강화와 농업용 보 2개소 철거, 어도 9개소를 정비해 남대천 생태 환경 복원이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생태계 기반인 연어자원조성을 위해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이 추진 중으로 2023년 완공이 목표다.

생태관광지로서 남대천의 변화가 추진되면서 수변공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남대천 하구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접안시설을 설치, 올해 말 준공되면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과 연계하여 둔치 주차장을 조성하고, 제방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통행이 편리해졌고,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파노라마 전망대, 구름다리, 분수,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생태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정돈된 양양의 시가지를 거닐다

3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주민들은 안심이에요

양양군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육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선진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지원, 교육지원, 가족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돌봄 센터, 공공 산후조리원의 통합 운영이 가능해져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일원화되는 편리함이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비(504명/222백만 원)와 교복구입비(297명/89백만 원)를 매년 지원하며,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학교의 명문화를 위한 인재 육성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등 교육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이다.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36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에 350대의 CCTV를 설치하여 예방 안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개소를 목표로 양양 경찰서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내년에는 해마다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준공할 계획으로 지역민들의 복지와 환경개선에 적극적이다.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

양양공항 활성화가 성과를 내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동북아 관광 거점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지역의 실속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행사 유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이클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전국 대회 규모의 사이클 대회를 2018년부터 4개 대회를 유치 개최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도 4개 대회를 유치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2019년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또한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유치 확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완공해 농산물 유통을 강화하였고, 올해 웰컴센터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해 농산물 유통의 플랫폼을 만들었다.

앞으로 2024년까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 로컬푸드 산업화, 로컬푸드 플랫폼을 조성, 농업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기반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양양군은 서울 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이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주말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인기 여행지가 되었다. 또한 시가지 전선 지중화로 도시미관 정비와 도시이미지가 개선되고 도로시설을 정비하여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등 지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효과도 크다.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추진되면서 안정되고 안전한 도시, 여기에 젊은이들이 즐겨 찾고 머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양양은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성장하는 양양군의 민선 7기 전반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향후 2년의 행보가 또한 기대되는 까닭이다.

민선7기 2년, 누구나 살고 싶은 양양을 만들어 갑니다

양양 사람에게 남대천은 누구에게나 특별하지만, 김진하 군수에게 남대천은 더욱 특별하다.
"학창 시절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남대천을 건너다니며 이곳에서 청운의 꿈을 키웠죠.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의 선물인 것처럼 양양은 남대천의 선물입니다."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민선6기에 이어서 총 6년간 양양의 군정운영을 이끌고 있는 김진하 군수를 남대천에서 만났다. 민선7기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금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는 김진하 군수의 군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들어본다.

Q. 양양군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수도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양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청정지역인 우리 양양을 더 많이 찾고 있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경기가 더 좋아졌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군 자체 예산으로 군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나눠드렸습니다. 양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인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민선7기 군정운영 절반에 다다랐는데 전환점을 맞은 소감은?

민선6기에 이어서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가지 정비사업, 도로 교통망 확충, 관광지 개발, 낙산도립공원 해제로 인한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앞으로 양양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열매를 맺도록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마무리 지어서 뼈대를 완벽하게 갖춰놓을 생각에 마음이 바쁩니다.

Q. 지난 1년간 군정운영의 성과와 변화를 꼽는다면?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게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남대천 순환도로가 연결되고, 남대천 곳곳이 공원화되면서 수상레저까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제주, 광주, 김포 등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전국의 사통팔달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공항주차장이 꽉 차 있는 걸 보면 실감합니다.

Q. 반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환경부에 발목이 잡힌 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백지화된 건 아닙니다.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인데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내수 관광 수요 확대에 따른 타당성을 알려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재추진할 겁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Q. 군정운영을 이끌면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는?

제가 양양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왜

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상심이 크고 지치죠. 처음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서 어떤 사업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는 분도 있었죠. 첫 삽을 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나면서 순환도로가 만들어지고 남대천 곳곳이 공원화돼 주민들의 쉼터가 되면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Q.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남은 군정운영 방향과 목표는?

민선6기부터 계획하고 구상했던 걸 열매 맺는 게 중요한 시점이죠.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가지 정비사업,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시행, 관광레저시설과 리조트 투자유치 등 마무리 지을 게 많습니다. 지역개발과 함께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양양을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다녀갈 수 있게끔 여러 방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알차게 마무리 짓는 게 목표입니다.

Q. 끝으로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처럼만 믿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혼내시고요. 변치 말고 기다려주십시오. 반드시 변화하는 양양을 꼭 보게 되실 겁니다.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승인, 동해북부선 등 지역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구도 3년 연속 증가세다. 김 군수는 이러한 양양의 변화에 맞춰 도심정비사업,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누구나 살고 싶은 양양을 만들고 있다. 또 도내 귀농 · 귀촌 선호도 1위 도시, 서핑 문화의 1번지로써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서퍼들의 이주로 인구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민선7기 김진하 군수의 군정운영 중간 성적표는 인구 3만 명 회복을 앞두고 전망이 밝다.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양양의 큰 그림이 기다려진다.

민선7기 2년, 주요 성과를 살펴본다

- 남대천 르네상르 프로젝트,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 및 생태관광지 조성
- 낙산도립공원 폐지에 따른 군 관리계획 정비 완료
- 문화 · 관광 다기능 도시재생으로
  도심의 미관과 편리성 개선
- 지역맞춤형 복지실현 및 실속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7기 2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 추진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공약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대해 살펴본다.

3년 연속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 교통 인프라 확충, 서핑과 같은 새롭고 활력 있는 관광자원 활성화, 마무리 단계인 남대천 르네상스사업 효과, 낙산도립공원 폐지에 따른 군 관리계획 정비 완료 등을 큰 성과로 꼽는다.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인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 및 이행에 속도를 내고, 일부 도출된 부진사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양양군 주요 성과지표

인구
2018년 27,207명
↓
2020년 27,787명
580명 증가

재정
2018년 3,023억원
↓
2020년 3,703억원
680억원 증가

도로포장
2018년 434,847m
↓
2020년 444,937m
10,090m 증가

주택보급율
2018년 107%
↓
2020년 109%
2% 증가

자동차
2018년 14,302대
↓
2020년 15,791대
1,489대 증가

상수도보급율
2018년 91.7%
↓
2020년 92.1%
0.4% 증가

사업체수
2018년 3,726개
↓
2020년 4,050개
324개 증가

인재육성장학금
2018년 68억원
↓
2020년 88억원
20억원 증가

관광업소
2018년 47개
↓
2020년 62개
15개 증가

식품위생업소
2018년 1,157개
↓
2020년 1,230개
73개 증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손양면 가평리

조용한 농촌 마을의 힘찬 도약
남대천 르네상스를 꿈꾸며
귀농 · 귀촌인들의 최애(最愛)마을

그 마을의 사람들은 강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다. 아주 먼 옛날 강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한 신석기인들의 삶이라든가,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부터 돌아오는 연어들의 회귀본능, 황홀하게 일렁이는 갈대의 풍경 등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강바람을 타고 마을에 와 닿았다. 남대천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한 마을의 이름은 가평리, 갈대가 많아 예부터 '갈벌'이라고도 불리는 곳. 그곳에서 아직 쓰이지 않은 마을의 서사를 읽는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

여름은 자연이 애쓰는 계절이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대지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은 나날이 짙은 녹음을 뽐내며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가평리 입구에 들어서자, 마을을 둘러싼 낮은 산들의 울울창창함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아래로 펼쳐진 마을 풍경은 더 없이 정갈하고 반듯했다. 그것은 분명 마을 사람들이 부지런히 애써 준 덕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평리 역시 수고로운 계절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가평리에는 현재 45가구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3~40%를 차지하는 가평리는 2017년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었고, 농촌건강장수마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력도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이장직을 수행했던 신병선 前이장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마을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천 시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 마련된 배수로를 따라 형성된 저류지가 있어요. 어릴 때는 거기서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추어탕을 끓여 먹곤 했죠. 그런 추억을 기반으로 저류지에서 미꾸라지를 키워 보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개체 수도 많이 늘었지만, 본격적인 소득 창출은 내년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농업이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가평리는 최근 마을이 보유한 관광 · 문화 · 역사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가평리 출신의 역사 인물 '함홍기 열사'의 묘역 주변을 개선한 일이었다. 함홍기 열사는 1919년 양양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본 경찰서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다가 그 자리에서 순국했다. 그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해 묘역까지 가는 길에 데크를 설치하고 안내판도 만들었다. 향후 함홍기 열사의 생가 복원 사업도 추진할 생각이다. 올해 취임 첫 해를 맞이한 최진만 이장(59세)은 앞으로 하고 싶은 마을 사업이 많다고 한다.

"저희 마을은 그동안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농사 위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함홍기 열사 생가 복원사업 외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영장 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평리만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꿈과 희망은 남대천을 타고

가평리는 남대천에 인접한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 외에도 가까운 남대천에서 황어나 연어를 잡아 살림에 보탰고, 아이들의 학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양양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남대천은 가평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특별한 장소라 하겠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대천이 물도 맑고 참 놀기 좋았어요. 철부지 시절에는 물놀이 하는 재미로 살았죠. 예전부터 송장이라고 해서 긴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만든 도구로 뚜거리도 많이 잡았어요. 지금도 허가를 받아 자망으로 재첩이나 황어를 잡아 부수입을 거두기도 합니다. 마을과 남대천은 그렇게 함께 세월을 건너온 거죠."

함남한 노인회장(72세)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에서 가평리 주민들에게 남대천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해 본다. 지금도 복날이 되면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모여 추억의 뚜거리잡이에 나선다. 그렇게 잡은 뚜거리로 부녀회에서 매운탕을 끓이면 주민들이 다 같이 나눠 먹으며 한바탕 마을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가평리 주민들과 숱한 추억을 나눈 남대천이 최근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며 변모하고 있다. 특히, 양양읍 월리 남대천 남측제방을 따라 손양면 송현리에서 가평리까지 3.6km 구간에 폭 15m 도로 신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로써 교통 편의가 개선되어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을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가평리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모두의 '최애마을'로 거듭나길

가평리는 양양을 찾은 귀농 ·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마을 중 하나다. 양양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농촌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 강이나 바다,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가평리의 강점으로 손꼽는다. 가평리 인구수가 10년 사이 대폭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주민과 이주민간이 갈등도 거의 없다. 정주민은 이주민이 새로운 곳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보듬고, 이주민은 마을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정주민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에 열심이다. 이렇듯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박자를 맞추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최애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 마을이 지닌 새로운 가치를 꾸준히 찾아가는 가평리 사람들처럼, 그 긴 서사의 끝에 행복한 미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글 · 사진 편집부〉

양양 어부들의 고유한 탕반湯飯음식 문화

'가자미 물회'는 알아도 '까제미 물회'는 뭐지?

사람에게 있어 음식이란, 행위와 행동의 본능을 따르는 구애求愛와도 같이 끊임없는 탐구적 양식이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은 마치 가장 복잡하고 화려하면서 처절한 구애행위를 하는 동물들의 생존 전략과도 다를 바 없는 본능적인 산물인 것이다.

숫컷 참새가 자신의 구애소리를 암컷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변 소음에 따라 저음, 중저음, 고음의 음역대로 바꿔가며 짝짓기를 유인하듯, 상고上古 이래 음식의 유인에 사람의 '미각적 구애' 행위 또한 끝이 없다. 때론 어떤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유인되어 만들어진 '구애의 음식'도 있는데, 바로 태산 같은 바다를 딛고 사는 어부들이 뱃창에서 말아 먹던 '물회'이다.

대동大同단결하던 식구食口들의 탕반湯飯음식

한 배를 타는 어부들은 혈연관계 따위는 전혀 상관없이 나와 같은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입'을 가진 한 식구食口이다. 밑도 끝도 없이 시퍼런 바다에서 윤기 흐르는 청동빛 대가리만한 고기를 잡을 때도, 서로부지하며 날선 비바람에 앞선 너울을 넘을 때도 어부들은 한 식구처럼 대동大同단결을 하고, 한 식구처럼 밥도 먹는다. 한 평생 그렇게 고단한 삶의 바다를 쫓아다니던 어부들이 구애의 바다로부터 본능적으로 먹게 된 음식이 '물회'라고 하는 탕반湯飯음식이다. 말 그대로 날것의 횟감을 썰어 찬 장국물에 섞어 먹는 독특한 조리법의 음식으로 세계음식문화에서도 기괴하고 매우 별난 음식이다. 1990년 대 초, 어부들이 뱃창에서 먹던 물회를 육지의 식당에서 상업적 음식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날 생선을 물에 섞어 먹는다는 것은 시챗말로 비호감이었다. 가뜩이나 날것의 비릿함 때문에 일명 '깡초'라고도 했던 빙초산과 백설탕으로 만든 초고추장을 흠뻑 찍어 먹는 판에, 횟감을 물에 섞어 먹는다는 것이 웬 말인가 싶었다. 멀쩡한 횟감을 왜 그렇게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오해가 '미각적 구애' 의 대중적 음식으로 인증 받기까지 이제 겨우 30여 년 남짓하다. 그 세월이 지나도록 여름만 되면, 바짝 마른 여름 가슴 팍 속을 서릿발처럼 쌀쌀맞게 흘러드는 시뻘건 물회 대접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뼈째 썬 '까제미' 물회가 양양물회

비록 양양의 물회가 다양하거나 별스럽지는 않아도 '까제미' 만큼은 예부터 단연 즐겨 먹던 물횟감이었다. '까제미'는 '가자미'를 일컫는 양양의 고유명사 같은 토속어이다. '까제"는 가자미처럼 몸집이 작고 행동이 빠른 생선을 뜻하는 뱃사람들의 은어로 가자미 또한 '까제'와 같다하여 '까제미'로 유래된 별칭이다. 물횟감으로 유달리 '까제미'를 즐겨 먹게 된 것은 어부들의 '직감적 미각' 때문이다. 양양의 선대先代어부들은 물횟감으로 도다리나 광어처럼 양념이 잘 배어드는 생선이라야 진짜 물회 맛이라고 한다. 오징어 살처럼 민들민들 하면 장국물이 베어들지를 많아, 초장에 찍어 먹는 횟감이 아니고 서는 이도 저도 아니게 심심해지기 때문이란다. 물회 육수 또한 지금처럼 새콤한 맛이 간들간들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몸서리치게 '깡초' 처럼시큼시큼 해야 '황소 뿔도 물러진다'는 오뉴월 삼복더위에도 한 대접 털고 나면 몸부터 시원해진다고 하였다. 뱃일을 나갈 때면 '항구'라 하여 군대에서 쓰던 반합에 집고추장을 담고 고추, 마늘, 무 한 덩이에 '빙초산' 한 병을 챙겼다. 그리고 뱃창에 있던 '까제미' 서너 마리를 뼈째로 성큼성큼 썰어 미알간 횟살을 장 국물에 말아 먹던 양양 어부들의 초창기 때 먹던, '까제미 물회'에 대한 단상이다. 어부들의 고단한 삶이 섞인 물회 한 그릇이라는 게, 오늘은 한참동안 가물다가 내리는 비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식구食口간의 성찬盛饌으로 맛봤으면 좋겠다.

〈**글 · 사진 :**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YANGYANG NEWS

양양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마무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군청사거리~남문3리 마을회관까지 0.45㎞, 남문3리 마을회관~함경면옥 90m 구간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또한 전선 지중화와 연계하여 보도정비, 가로등 교체, 신호등 이설, 버스승차장 설치 등의 양양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지난해 3월부터 굴착 및 관로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5월 30일까지 전선 지중화 및 전주 철거를 완료했다.

양양정수장 취수공 확보 ... 여름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여름 휴가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 남대천 일원 취수공 추가 확보를 완료했다. 서핑 활성화 및 고속도로 개통, 공동주택 입주 증가에 따른 효과로 물 부족 현상이 매년 더욱 심화될 것을 예상해 서면 용천리 남대천 일원에 취수공 1개소를 개설하여 1일 취수량 7,000㎥를 확보할 수 있는 양양정수장 식수원개발 사업을 지난달 준공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1일 취수량 29,050㎥을 확보, 관광 성수기를 포함해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양지역 여름해수욕장 7월 10일 개장

양양지역 21개 여름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올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해수욕장은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해 하조대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정암해수욕장, 물치해수욕장 등 총 21개소(해안선 9,400m)이다.

※ 여름해수욕장 운영 대상지
- 낙산, 물치, 정암, 설악, 송전, 동호, 중광정, 하조대, 기사문, 잔교, 북분, 동산, 동산포, 죽도, 인구, 광진, 갯마을, 남애1리, 남애3리, 원포, 지경(총 2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5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양양초와 서면 한남초, 강현면 강현초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매일 24시간 과속 위반 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또한 도로 폭원을 확장하여 어린이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정비 및 미끄럼 방지 포장도 실시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제한속도 표시 재도색으로 시인성을 강화했다.

양양문화제, 코로나19 지역 전파 차단위해 개최 취소

양양문화제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전파를 차단하고자 제42회 양양문화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집단 발생하여 확산되는 가운데 민속시장 및 초청공연 등 불특정 지역 외지인 유입에 따른 집단감염 노출 등의 우려에 따라 최종 결정됐다. 민속시연 및 6개 읍 · 면 민속경기,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다만, 개회식에 앞서 진행하는 제례행사인 고치물제, 양양성황제는 7월 3일 오후 4시 고치물 샘터와 성황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양양군이 관내 유치원, 초·중·고 2,019여명 학생에게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한다. 코로나 19로 신학기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가정 내 식사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농가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가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기로 했다. 배송되는 꾸러미는 1인당 55,000원 상당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말 배송을 시작하여 7월까지 배송을 완료할 계획이다.

2030년 인구 6만명 목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 행정구역 전반에 대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군 관리계획은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계획이다.

이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년도, 인구 6만명을 목표연도 및 목표인구로 설정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제시,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민들의 시급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3년 연속 인구 증가 추세,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지속 추진

5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27,787명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77명, 작년 5월말 대비 182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군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2023년까지 인구 3만명대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인구유입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출산 · 보육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인구 유입에 대응한 도시개발사업 등 정주공간 확충 및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해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소득 기반조성으로 청년 도시민 유치, 미래 농업인을 육성한다.이밖에도 추진 중인 민자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2.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대회
3. 양양군 긴급재난지원금 배부
4. 정다운마을 장애인작업장 점검
5. 코로나19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캠페인
7. 수상레포츠체험장 폰툰 진수 현장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양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김의성 의장

이종석 부의장

제8대 양양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에 김의성 의원, 부의장에 이종석 의원을 선출했다.

김의성 의장은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양양군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8건 등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는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조례안 8건 등을 심의 · 의결했다.

6월 25일 개의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총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에서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7월 1일 개의된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의결되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양양군의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4일간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양양남대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서핑 해변시설 실태점검,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현장 20여곳을 점검했다.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오색주차장 주차타워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불법 주 · 정차 행위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운영방식을 신중히 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경관광지 조성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업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며,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핑해변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며 시설 조성 시 서퍼들의 요구사항 수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핑특화구역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원스톱 서핑이 이뤄지기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샛강 및 관정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군민들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매호생태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바람직함을 표하며, 포매천 정비사업과 협의 추진하여 석호를 오염시키지 않고 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군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했다.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반영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둔전골과 진전사

설악저수지

진전사 삼층석탑

진전사 금당(적광보전)

둔전골

둔전골은 산자수명한 천혜의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다. 백두대간과 태백산맥의 허리, 양양의 진산 설악산에서 크고 작은 구릉이 동으로 뻗어내려 마치 병풍을 펼쳐 놓은 듯 아늑하고 포근한 골짜기이다. 멀리 앞쪽으로는 맑고 푸른 동해가 있고 설악산 계곡에서 발원하는 계곡수는 그 끝자락에 모여서 하천을 이루고 물치천이 되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설악산 계곡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곳에 고려시대부터 나라에서 둔전을 경영하던 곳 이라 이름 붙여진 둔전리 마을이 있으며 마을 위쪽에 높이가 41.1m 에 길이가 172m 이고 총저수량이 144만 톤에 달하는 설악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관리하는 1980년도에 준공된 이 저수지는 강현면의 광활한 진미 뜰과 회룡지역의 논농사에 꼭 필요한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관산 중턱에 있는 진전사에서 저수지를 내려다보면 앞뜰의 연못처럼 보인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은 둔전골을 감싸고 북으로 화채봉과 송암산을 거쳐 진전사가 있는 관산으로 내려오고 남쪽으로는 관모산을 거쳐 성치능선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 마을에는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명산대천에 국가에서 소사의 예를 올리던 설악산 재단인 명월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삼국사기 제32권 잡지 제1)

그 뿐 아니라 신라 신문왕 11년(691) 창건된 청련암과 조선시대 창건된 학소암 등의 암자가 있었으며 향산비폭, 여귀소, 고메기폭포 등의 명소가 있다.

명산 설악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다. 둔전리 마을에서 관모산을 끼고 오르는 호랑콧등 길과 아홉 개의 계곡을 건너야하는 아홉물나드리(아홉싸리 라고도 한다)로 대청봉 아래 까지 간 후, 오른쪽의 완만한 화채봉길을 이용해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가파른 산길을 이용해서 곧바로 가는 길이다. 곧바로 오르면 중간쯤에 높이 20여m로 100여명이 쉴 수 있는 바위굴인 대궐모듬암이 나오며 이곳에서 30여분을 올라가면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 1,708m의 대청봉에 이르게 된다.

진전사(陳田寺)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말에는 창건되어 있어서 도의선사(道義禪師)가 당으로부터 귀국한 헌덕왕 13년(821)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으며 사찰 중에서도 근본 대도장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선종(禪宗)을 크게 일으키려던 도의선사가 주석(駐錫)한 곳이 여기요 또 일연선사가 체도(剃度)한 선문이 이곳이다. 그러므로 진전사는 8세기부터 14~15세기까지 장구하게 선종의 사찰로 법통을 전등(傳燈)하였다.

도의에 의하여 개산(開山)된 가지산문(迦智山門)은 일연선사가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고려 고종 6년(1219) 당시까지도 진전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존속했으나 어느 시기엔가 폐사된 채로 둔전사라 불리어져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까지도 인식되고 있었다.

이렇게 둔전사로 알려져 왔던 사지(寺址)는 1965년 조사 시 신영훈이 「陳田」이라 새겨진 기와장을 수습하고, 1975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30여개의 「陳田」·「陳陳田田」이라 새겨진 기와장을 수습하면서 진전사의 위치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사지는 도의선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종선(南宗禪)을 신라에 최초로 전래한 역사성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宗祖)인 도의선사와 연계한 사상성이 부각되는 사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진전사는 통일신라 말에 창건되어 고려 예종8년(1113) 및 충렬왕3년(1299)에 2차례, 조선 세조13년(1467)의 중수 등 모두 3차례에 걸친 중수사실이 확인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진전사의 중창복원 계획이 구체화되어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현지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건물 배치와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작성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부터 금당(金堂)의 건립이 진행되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의 골기와집이 완성되었고 서쪽 편으로 길게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요사체 건물이 배치되었다.

진전사지는 3층 석탑이 있는 지역과 도의선사의 부도(浮屠)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둔전리 마을의 서북쪽에 솟은 관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진전사지에 있는 3층 석탑은 국보 122호로, 도의선사 부도는 보물 439호로, 진전사지는 강원도 기념물 52호로 지정보호 관리되고 있다.

두 지역은 동·서로 약 600m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부도지역은 산 중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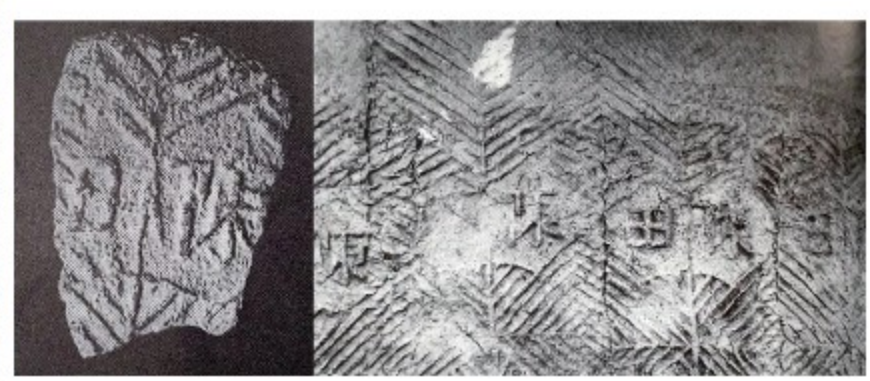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석탑으로 2층 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상륜부는 노반(露盤)만이 남아있고, 삼층 옥개석 윗면에 직경 10cm, 깊이 10cm의 찰주공(擦住孔)이 남아있다. 이 석탑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8세기말~9세기 초로 생각되며, 조각기법이 매우 섬세하고 우수하여 신라하대의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삼층석탑은 1968년 완전히 해체하여 정 위치에 복원되었다.

석조부도는 통일신리시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탑신부가 팔각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기단부는 석탑에서와 같이 사각형 2중 기단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도 역시 흩어진 석재들을 모아 복원함으로서 명실 공히 지정문화재 면모를 갖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글 · 사진 양양문화원

도의선사 부도



1965, 1975년 진전명(陳田銘) 출토기와

이달의 책이야기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셍커 지음 | 박성현 옮김 | 미디어 숲
(2020. 5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라!

'위기는 기회다'라는 오래된 말이 있다. 위기라는 말은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될 위험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과거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낙오할 것이고 재빨리 새로운 질서를 파악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셍커는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이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제시한다. 각 분야에 있어 대전환의 핵심을 짚어 누구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미래 변화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혼란을 헤쳐 나갈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 책 속 한 구절 ◆

** 미래의 전문직을 살펴보면 원격 업무를 기반으로 한다. 의료 서비스, 유통망, 제조업, 무역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즈니스 직업과 전문가의 역할은 대부분 온라인화가 될 것이다. 오래도록 이 같은 조짐을 보였다. 의료 서비스업, 유통업, 원격 직업에 대한 사회 · 경제적 선호가 커졌고 코로나19는 이를 성큼 앞당겼다.

**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달의 [추천신간]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고재욱 지음 / 박정은 그림 / 웅진지식하우스(2020. 6월)

생의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게서 배운
삶과 행복의 가치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노인들의 삶을 7년간 꾸준히 기록해온 현 직 요양보호사의 감동 에세이『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지난 7년간 100여 명의 노인들을 떠나보내며, 그들의 마지막 나날들을 글로 담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오직 기억뿐이라면, 기억조차 사라진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치매 노인들의 조각난 기억들을 그러모아 그들의 인생을 기워보며, 기억이라는 형태로도 담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한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이수 지음 / 전이수 그림 / 웅진주니어(2020. 5월)

자아도 인생도 가끔 생각하는, 조금은 성숙해진 앵그리 리틀 걸스 두 번째 이야기!

2008년에 태어난 물고기자리 남자아이. 전이수 작가는 행복하다. 제주에 사는 게 마냥 즐겁고, 뭐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어 힘이 난다. 두 손과 두 발이 아름다운 세상을 느낄 수 있어서, 시원한 소나기를 맞으며 마음껏 춤출 수 있어서, 힘겨워 하는 이에게 작은 어깨라도 빌려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열세 살 소년에게 있어 행복의 이유는 애써 손에 꼽지 않아도 삶 속에 넘쳐난다. 영재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이런 행복의 이유들이 '전이수'라는 작가를 새로이 보게 되는 이유가 될 테다.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
2. **지원기간:** 2020.5월~9월 납부분(연도내 소급)
3. **신청기간:** 2020.10.10.까지
   * 기한내 미신청시 수시 신청 가능(연1회신청)
4. **신청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3층) 방문신청
5.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6. **문의처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양양식자재마트	00명	야채,청과/정육/계산원 공산품진열원	08:00~22:00 (시간협의)	협의 (시간제 가능)
㈜다인	2명	부식(칸막이)설치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협의)
코레일낙산연수원	3명	편의점 계산원	14:00~23:00 (시간협의)	시급 8,590원 (협의)
(유)양양지활 환경지원센터	2명	재활용 분리선별원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
㈜월드와이드 서비스코리아물자(학)(월곶)	1명	영양사	08:30~17:30 (주5일)	월215만원
청곡정미소	1명	제조단순종사원	08:00~17:00	월180만원
㈜대명호텔앤리조트 양양지점(쏠비치)	2명	냉난방 설비조작원 (에너지관리기능사)	교대근무	연2,600만원이상
	1명	서비스 단순종사원 (여자사우나)	교대근무	연2,295만원
맘마미아	1명	쇼핑몰관리인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
㈜디엠에스	20명	객실청소원	교대근무	연2,455만원
정다운마을	2명	구내식당 조리원	2교대	월179만원이상
	18명	생활지도원 (기간제17명 포함)	교대근무	월179만원이상
팜일레븐에이커	4명	제빵보조,롤메이드, 카페아르바이트	시간협의	시급9,500원이상 (협의)

새활용 "신문지봉투"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서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의 순 우리말입니다. 새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자활센터 에서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신문지를 활용하여 봉투를 접어 지역사회에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현재 양양군 관내 마트 및 문구사외 7곳에 배포하고 있다. **문의 : 673-4848**

정보꾸러미

양양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1.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 · 정차된 차량

가.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 · 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앱 (국민신문고)

다.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 · 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라.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2. 시 행 일 : 2020. 6. 29.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3.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양양군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운임·요금 안내

1. 적용시기: 2020. 7. 1. 운행분부터

2. 적용대상: 양양군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이용자

3. 양양군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운영 및 요금

· 기본요금: 3시간 6만원(탑승객 부담 2만원, 양양군 보조금 4만원)

· 추가요금: 1시간당 1만5천원

· 운행구역: 양양군 관내

· 이용방법: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033-670-2989)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 · 장년 등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7~15개월간의 프로그램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위소득 60%이하, 특정취약계층

* 특정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15세~24세) 등

Ⅱ유형: 청년(만18세~34세 소득무관), 중장년(만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2. 가구원 중위소득 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패키지 Ⅰ (60%이하)	소득인정액 (B=A×0.6)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건강보험료 (B×0.0323)	35,161	59,870	77,450	95,031	112,612	130,192	147,868
패키지 Ⅱ (100%이하)	소득인정액 (B=A×1)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건강보험료 (B×0.0323)	58,602	99,783	129,084	158,385	187,686	216,987	246,447

3.지원내용

1단계 취업상담		2단계 직업능력 향상		3단계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직업훈련 (www.hrd.go.kr에 등재된 훈련 과정만 지원 가능)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구인업체 지정알선
참여수당 15~20만원	→	훈련비 50~100% 지원 (훈련과정에 따라 상이) 80% 출석시 월 최대40만원 (최대 6개월)	→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가구원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Ⅰ유형만 해당)

※ 구직촉진수당은 "코로나 19"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임

– 대상: 2020.1.1. 참여자 중 가구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50만원*3개월 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등 만 65세 이상은 월 2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속초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www. work.go.kr/pkg)

※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등 제출 필요

※ 특정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2019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영세자영업자(2019년 과세표준증명원), 여성가장(가족관계증명서), 신용회복지원자(관련기관 확인서), 결혼이미자(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관련기관 확인서), 위기청소년15세~24세(관련기관 확인서)

5. 문의전화 속초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033)630-1902, 630-1905

제1회 양양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기간 2020년 11월 2일(월)~11월30일(월)
출품자격 제한 없음

작품내용 양양지역 농-어촌 생활문화상, 산-바다 4계절 자연경관, 축제와 레포츠, 관광명승지-양양팔경(미 발표작)

작품규격 11"x14"인화 (최근 3년 내 촬영한 컬러 또는 흑백)

출 품 료 1인 4점 이내 2만원 (계좌송금)
농협 301-0266-6579-51 양양군청 ※송금확인 후 접수

접 수 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양양예총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
(지부장 : 010-6371-3459, 사무국장 : 010-5074-7256)

접수마감 2020년 11월 30일(월) 당일 소인 유효

시상내역
금상 1점 : 양양군수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은상 2점 : 양양군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양양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협 양양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입선 50점 : (사)한국사협 양양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유의사항

- 입선이상 작품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원본파일 4000x2500픽셀 이상으로 수상자발표에 표시된 웹하드에 전송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입상, 입선을 취소함. 가작이상 수상자는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상금은 관내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양양군관내 3년 이내 촬영한 사진작품**으로서 인물위주의 사진은 추후 관광홍보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입상작으로 뽑지 않음.
- 디지털합성사진, 기 발표된 작품, 타 지역 작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입선, 입상이 취소됨.
- 본 공모전에 출품한 낙선사진은 일괄 폐기되며 반송을 하지 않음.
- 입선 이상의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되며, 촬영 된 관련 인물에 대한 초상권은 출품자가 책임을 진다.

주최 양양군 주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 양양지부 후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양양지회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낮에 쓰레기없는 거리만들기"

제발! 토요일, 일요일 버리지 마세요.

1. 배출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 배출시간 : **일몰 후 부터 ~ 아침 6시까지**

· 배출장소 : 대로변(지정장소)에 배출해주세요.

2. 토요일 저녁은 배출을 자제해 주세요.

공휴일에 생활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은 배출을 자제해 주세요.

3.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이용해 주세요.

생활쓰레기 종류에 따라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해 주세요.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1. 환경자원센터 반입폐기물 분리수거 상태 집중 점검
   · 점검기간 : 7. 6. ~ 7. 17.(2주간)
   · 점검내용 : 소각 · 매립 · 재활용 분리수거 상태
2.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 단속기간 : 7. 6. ~ 7. 17(2주간)
   · 단속내용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미준수 등

양양군